

圭南 河百源 기행시의 懷古的 경향에 대하여

박명희*

<차 례>

1. 머리말
2. 遊觀과 기행시의 회고성
3. 회고적 경향의 시적 전개
4. 시적 전개의 志向과 의미
5. 맺음말

1. 머리말

18말과 19세기 초는 중세기를 지나고 근대기로 향해가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봉당기의 완숙 단계를 뛰어넘은 시기로 이로 인한 폐해가 곳곳에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봉건주의에 대항하는 세력도 나타나 혼란이 가중되었다. 또한 유학에서는 성리학과 구별되는 실학이 성숙되어 갔고, 대외적으로는 천주교가 전래되고, 서양 문물이 유입되는 등 전과 다른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당시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유교의 교조주의에 젖은 인사라면 용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시대의 흐름은 역행할 수 없었기에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 외에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京·鄉間의

*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分岐이다. 이는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으로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18세기 말에 이르면 분기 현상은 뚜렷해져 경·향간 각자의 관심 영역이 달라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경화사족들이 한양 도성의 當代文物을 구가하는 취향이 뚜렷하고, 옛 것을 좋아하더라도 객관적인 감정치가 보장될 만한 古董 書畫 등을 애호하는 데 비해, 향촌 사족들은 자기가 갖들여 사는 향토를 예찬하되 찬탄했던 과거와의 대비 속에서 주로 祖先들이 남긴 자취를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¹⁾

본 논고는 圭南 河百源(1781~1845) 기행시의 懷古의 경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하백원은 호남의 대표 실학자 중 한 사람으로 지칭되는데, 그의 학문 영역이 성리학에 그치지 않고, 天文·地理·律曆·算數·書畫·圖章 등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생활 속에 이용할 수 있는 自升車를 발명하고, 『東國地圖』 등을 제작했기 때문에 풀이된다.²⁾ 따라서 이러한 면모에 초점이 모아져 연구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문에 흐르는 전반적인 경향은 이러한 학문적인 모습과는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시문을 통하여 현실을 비판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개인적 서정 양식으로서 상황에 따라 감정 상태를 自在롭게 표현해내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기행시는 이와는 별개로 서정적으로 읊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 과거를 회고하며, 변모해가는 시대에 대응해가는 향촌 사대부의 모습을 담고 있기에 주목을 요한다. 뿐만 아니라 회고하는 가운데 의식의 편린까지 담고 있어 조선후기 향촌 사대부의 삶의 자세도 함께 읽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 김석희, 『조선후기 향촌사대부 시가와 취향의 문제』, 『조선후기 시가 연구』, 월인, 2003, p.255.

2) 하백원의 생애에 대해서는 安晉吾(「圭南의 성리학과 실학사상」, 『호남유학의 탐구』, 이회, 1996, pp.144~153)와 이종범(「조선후기 同福 지방 晉陽 河氏家の 學問과 傳承」, 『전남사학』 24집, 전남사학회, 2005, pp.11~18), 그리고 줄고(「圭南 河百源 시에 나타난 情懷의 변모 양상」, 『한국언어문학』 57집, 2006, pp.162~166) 등을 참조할 것.

2. 遊觀과 기행시의 회고성

하백원의 생애는 修學期, 學問發展期, 出仕期, 그리고 流配期 등과 같이 4기로 구분할 수 있다.³⁾ 하백원은 이러한 일생동안 끊임없는 遊觀을 거듭하며, 거기에서 느낀 감회를 시문으로 읊기는가 하면 때로는 의식까지 드러내기도 하였다.

수학기는 23세 진사시험에 합격할 때까지를 이르는데, 詩題에 보이는 주요 유관 장소로는 松廣寺, 赤裳山城, 黃澗, 任實 九臯村, 山老里, 草洞, 尤菴先生墓, 泣弓巖, 荊江, 玉溜閣, 雙溪寺, 凝石寺, 南海 錦山 등이다. 이 당시는 학문에 전념해야 했던 때이기 때문에 유관하는 것이 정신적인 부담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이는 적상산성에서 읊은 시문의 일부 내용인 '때는 가을이라 참으로 좋아, 풍경을 거두어낼 수 있다네. 기어오르기를 만일 쉬지 않는다면, 우뚝 솟은 산 오르기 어렵지 않으리라. 다만 고향 생각으로 급하여, 우리러 보기만 하고 올라가지 못한다네.'⁴⁾와 같은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적상산성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세운 산성으로 전북 무주군 적상면에 소재해 있다. 하백원이 적상산성을 갔던 계절은 풍경이 한참 좋은 가을이었다. 때문에 산성에 오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고향을 생각하느라 우리러 보는 데에서 그칠 뿐 더 이상 오르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이때 부친은 세상을 뜬 상태였기에 고향에 계신 모친을 생각하는 정이 깊었던 것이다. 또한 유관하는 중에도 세상을 뜬 부친과 조상, 그리고 先代의 스승들을 회고하며 시문으로 읊기는데, 尤菴 宋時烈과 重峯 趙憲, 同春堂 宋浚吉 등이 스승으로 떠올린 구체적인 인물들이다. 이들 스승들은 모두 당대에 학문적으로 높은 경지 올랐던 인물들로 하백원 자신이 현재 수학기에 임해 있음을 생각할 때 남긴 자취를 더듬어 시문을 차운하며 회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필자가 정리한 하백원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기논문을 참조할 것.

4) 『圭南文集』 卷1, 「望赤裳山城」, ……是時秋政好 風景堪收拾 躋攀如不休 不難上崑崙 祇緣鄉思促 仰之不可級…….

학문발전기는 23세 진사시에 합격한 이후부터 54세 천거로 벼슬길에 오르기 직전까지를 이른다. 이때는 전 생애 기간 중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문에 의하면 유관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던 듯하다. 그 이유는 추측컨대 27세 때에 있는 스승의 죽음과 31세와 33세 때에 뒤따른 조모와 모친상 등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학문에 집중했던 시기로 여유롭게 유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신적으로 과거시험에 대한 중압감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마찬가지로 마음의 여유를 찾기가 힘들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제에 보이는 유관 장소로는 雪山, 京都, 廣津, 松坡, 龍仁, 葛院, 弘慶院, 錦江, 水回洞, 花開洞, 海印寺, 勿染亭, 大學巖 등등을 지목할 수 있다. 이중 경도, 광진, 송파, 용인 등은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치르고 가던 도중에 유관한 곳이 분명하고, 그 외의 다른 곳은 생애 기간 중에 간혹 유람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23세 때에 이미 성균관에 입학까지 하였으나 조모의 병환으로 대과에 응시하지 못하고, 14년이 흐른 37세에 다시 시험을 치렀으나 이번에는 내침을 당하였으니⁵⁾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음이 분명하다. 시문 내용 중에 간혹 보이는 '浮生'이라는 말에서 이 시기 감정 상태가 편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급기야 「錦江舟中」이라는 시문에서는 '벵사공은 나의 행색을 묻지 말라, 나는 서쪽에서 와 명승지를 멋대로 구경하리니.'⁶⁾라고 읊기까지 한다. 즉, '멋대로 구경하겠다'는 말은 의도적일 수도 있으나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누리지 못했던 여유를 찾아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만사를 그러저럭 살아오다 본래의 뜻 어기고, 한 몸이 살아가는 데는 청산이면 만족하네.'⁷⁾라고 읊는다든지, '그릇된 계산은 한갓 수고롭게 동이를 부

5) 『圭南文集』卷1, 「僕性懶散 自分棄置 不赴試京師 已十四年 今年秋 偶復入荊園 見擯而歸 作詩自嘲」

6) 『圭南文集』卷1, 「錦江舟中」, …… 長年休閒我行色 我自西來恣勝遊.

7) 『圭南文集』卷1, 「下第南還 偶拈寒水齋集中韻 寄水館子李季問學在」, …… 萬事因循

수고, 벼슬살이 내침을 입음에 산에 돌아오기 좋네.’⁸⁾라고 하여 시문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 보여준다. 수학기부터 가졌던 청운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실망감이 컸을 것인데, 세속적인 삶을 잠시 접고자 하는 생각을 시문에 담았다. 또한 시문을 통해서 보자면, 특히 先人들이 남긴 역사적 현장감이 느껴지는 유적지를 유관하면서 회고하기도 하는데, 송파, 흥경원, 해인사, 물염정, 대학암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출사기는 천거로 벼슬을 하기 시작한 54세부터 62세에 충남 보령으로 유배가기 이전까지를 이른다. 51세 때 경명행수로 천거받은 하백원은 54세 때 추천으로 昌陵參奉에 임명된다. 그후 禁府都事(56세)·順陵直長(57세)·司饗院 主簿·刑曹佐郎(58세)·宗廟令·慶基殿令(60세), 石城縣監(61세) 등을 역임한다. 이와 같이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벼슬을 했던 때 인지라 이 시기 시문 내용을 보면, ‘나그네 의식’이 유달리 강했던 것으로 나타난다.⁹⁾ 또한 관직에 몸담은지라 여러 곳을 마음대로 유관할 수 있는 여유를 찾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제에 의하면, 沒音峙, 壺山, 市津, 錦江, 圓峴, 草浦, 暮老院, 扶餘, 落花巖, 唐碑, 臯蘭寺, 夢賚亭, 廣倉, 津寬寺 등등의 유·무명의 지명이 거론되어 유관했던 곳임을 알게 한다. 특히, 이들 중에서 부여, 낙화암, 당비, 고란사 등은 역사적 현장감이 남아 있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역사현장을 유관하며 타

違素志 萬事因循違素志 …….

- 8) 『圭南文集』卷1, 「下第南還 偶拈寒水齋集中韻 寄水館子李季問學在」, …… 謬筭徒勞 仍破囊 公車被放好還山 …….
- 9) 『圭南文集』卷1, 「失眠」, …… 羈旅苦難平 …… / 『圭南文集』卷1, 「夜坐遣懷」, …… 締葛驚霜知久客 …… / 『圭南文集』卷1, 「草浦途中」, …… 旅思若爲歡 …… / 『圭南文集』卷1, 「除夕」, …… 浮生元是客 …… / 『圭南文集』卷1, 「雲水道中潦水甚漲時余下鄉還京」, …… 客子困西征 …… / 『圭南文集』卷1, 「次明寢李好能述懷韻」, …… 羈愁獨與殘燈語 …… / 『圭南文集』卷1, 「平洞夜坐」, …… 逢秋遠客獨登樓 …… / 『圭南文集』卷1, 「義禁府蓮亭謹次佔畢齋韻」, …… 羈禽若憶林棲好 …… / 『圭南文集』卷1, 「平洞夜坐與李季問共賦」, …… 久客身空在 …… / 『圭南文集』卷1, 「直金吾夜」, …… 西風客未歸 …… / 『圭南文集』卷1, 「生朝有感」, …… 却欣八載離鄉客 …….

향에서의 쓸쓸함을 달래는가 하면, 옛 일을 회고하며 현재의 삶을 되돌아 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유배기는 62세부터 63세 때까지를 이른다. 충청도 보령현으로 유배를 간 하백원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래서 ‘늙은이 신성현에 유배 당하여, 궁한 마을에 귀신처럼 앉아 문을 빗장하였네.’¹⁰⁾라고 하여 외부와 왕래가 없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도 잠시 뿐 곧바로 뒤이어 ‘그윽한 생각 초초히 날지 못함을 애석하여, 억지로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고자 하네. 평옹과 광우 원래 함께 어울려, 약속한 날 신발 다스려 내키는 대로 실컷 놀았네.’¹¹⁾ 라고 읊는다. 스스로도 죄를 지어 유배 온 몸인지라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 초조하게 지내고 있던 중에 유배지에서 사귀 친구들과 함께 실컷 놀았노라고 하였다. 타향인데다가 유배지이기 때문에 위축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지인들의 물심양면 도움으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리하여 여러 곳을 유관하기에 이르는데, 시제에 드러난 장소로는 黃鶴樓, 永保亭, 聖住山, 冠巖 등이다. 물론 이러한 곳 또한 역사적인 현장감을 갖고 있다. 역사적 현장을 중심으로 답사하며, 옛 일을 회고하는 가운데 시문을 통하여 소회와 의식 등을 나타내보여 주었다.

3. 회고적 경향의 시적 전개

여행을 하게 될 때는 여러 계기가 작용한다. 자율적으로 心懷를 달래보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타율에 의해 일상적 삶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접해보기도 한다. 이렇듯 그 계기는 다양하지만, 기행 중에 읊은 시문은 온전히 작가의 것으로 남아 작자의 내면세계를 들여다

10) 『圭南文集』 卷1, 「聖住山紀行」, 老夫謫居新城縣 窮閭鬼坐關門扇 …….

11) 『圭南文集』 卷1, 「聖住山紀行」, …… 幽思悄悄吝不飛 強欲登高騁眺眇 平翁光友元同調 約日理履态遊衍 …….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가령, 기행시 속에 무슨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가? 아니면, 기행시가 대상으로 한 것은 무엇인가? 등등의 것을 통하여 기행시를 읊은 작자의 지향 의도 등도 알아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이유로 하백원이 기행시에서 읊은 회고의 대상을 알아보는 것은 단편적이거나 그의 지향 의식까지 읽을 수 있어 유익하다고 본다.

하백원의 기행시에 나타난 회고 대상은 첫째 先祖, 둘째 先師, 그리고 셋째 역사 현장을 통한 역사적 사실 등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중 특히, 첫째와 둘째는 인물을 회고한 것으로 개인사적인 부분이 가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선조를 회고의 대상으로 읊은 작품을 들어본다.

寺門長向石泉開	절문은 멀리 석간수 향해 열려있는데
廢址重新淨掃埃	폐허된 터를 중건하여 먼지 쓸어 깨끗이 했네
三世眞容曾揭此	세 분의 진짜 용모 일찍이 이곳에 걸려 있었는데
群賢遺墨獨傳來	못 현인이 남긴 글씨만 홀로 전하여 오네
至今杖履留芬馥	지금도 지팡이와 신에는 향기 머무르는데
伊昔衣冠已劫灰	옛날 의복과 관은 이미 불에 탔다네
小子科名餘慶在	소자 과거에 급제하여 남은 경사 있기에
感懷斜日強登臺 ¹²⁾	해 기울자 마음에 느낌 일어 힘써 누대 오르네

시제에 의하면, 응석사라는 사찰에서 다른 사람이 이미 지은 시문의 운을 이은 것으로 되어 있다. 먼저 수련에서는 절의 외형적 모습과 아울러 폐허되었던 것을 중건했다는 역사적 사실 등을 알려주고 있으며, 함련에서는 사찰에 걸려져 있던 세 분의 선조 진상이 지금은 사라지고, 많은 현인들의 시문만이 남아있음을 전하고 있다. 경련에서는 과거의 의복과 관 등은 비록 사라졌지만, 그 때의 향기만은 머물러 있다라고 하며, 과거와 현재 상황을 서로 대비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미련에서는 응석사를 오게 된

12) 『圭南文集』 卷1, 「凝石寺謹次先祖影堂韻」

계기를 은밀히 보여주며, 선조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에 오게 된 감회를 토로하였다.

위 시의 小序에 이르기를 ‘내가 과거에 급제하고 진양에 도착하여 선조의 묘를 쓸고, 곧바로 응석사에 들어갔다. 그 절에는 옛날에 송헌·태헌·목옹 삼세의 진상이 있었으나 임진·계사년 사이의 병화로 인하여 보존되지 못하고, 다만 당시 유명한 석학들이 진상을 칭찬한 여러 편의 시만 있었다. 중간에 응석사의 루를 다시 새롭게 하여 진상을 걸어 놓았기에 문지르며 감격하여 울면서 삼가 남은 운을 잇다.’¹³⁾ 라고 하였다. 소서를 통해서 보자면, 작자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고 난 뒤에 선조의 묘를 찾게 되었고, 곧바로 선조인 松軒 河楫·苔軒 河允源·木翁 河自宗 등의 진상이 있는 응석사라는 사찰을 찾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때 사찰의 진상은 이미 임진란의 화를 입어 없어진 상태였고, 진상을 칭찬한 시만 남아 있어 감격하며 시의 운을 이었노라고 하였다.

경남 진주의 집현산에 자리한 응석사는 해인사의 말사로 신라 진흥왕 15년(554년)에 연기조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후 고려 말 나옹 혜근과 무학 자초 등과 같은 유명한 大師들이 머물렀으며, 조선시대에는 사명 유정, 진묵 일옥 등과 같은 당대 명성을 떨친 선사들이 수도했던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임진란이 일어나자 왜병들이 방화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대웅전을 비롯한 많은 건물들이 燒失되는 화를 당하고 만 것이다. 영조 때에 이르러 중수하여 복원의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였지만, 건물 안에 소장된 문화 유물을 다시 원상회복할 수는 없었다. 하백원 자신이 소서를 통해 안타까워하는 진상 또한 임진란의 화를 피하지 못하고 사라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상의 주인공인 하즙, 하운원, 하자종 등은 고려 말의 인물들이기에 하백원 자신과의 시간적 차이는 많지만, 선조를 숭배하는 정신은 물리적인 요소와는 무관한 듯 회고하며 감격해하고 있다.

13) 『圭南文集』 卷1, 「凝石寺謹次先祖影堂韻」 小序, 余忝蓮榜到晉陽 掃先墓 仍入凝石寺 寺舊有松軒苔軒木翁三世眞像 而壬癸間因兵燹 不保 只有當時名碩贊像諸詩在焉 中歲重新寺樓而揭之 摩挲感涕謹 次遺韻.

그러나 감정의 상태를 직접 엿보이지는 않았다.

반면, 다음 작품은 선조가 왕래했던 자취를 지나치며 감회에 젖는데, 감정을 직접 드러내 보이고 있다.

村居寥落客增悲 마을이 쓸쓸함에 객의 슬픔 더하니
窮巷無人萬木垂 사람 없는 뒷골목에는 많은 나무 드리워져 있네
吾祖當年來憩地 우리 조상이 당년에 와서 쉬 땅을
孱孫停馬故遲遲¹⁴⁾ 못난 자손이 말 머물러 짐짓 더디더디 하네

두 작품 중 첫 번째 시문을 인용하였다. 시제에 의하면, 任實의 九臯村이라는 마을을 지나다가 느낌이 일어 작품을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소서에서 ‘구고촌은 나의 고조 비 박씨가 나서 자란 땅으로 고조할아버지인 伴鶴公이 일찍이 왕래했던 곳이다.’¹⁵⁾라고 하며, 구고촌이 작자 자신과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개인사적인 인연을 들어 알려주고 있다. 반학공은 작자 하백원의 고조부인 河聖龜를 가리키는데, 尤菴 宋時烈과 農巖 金昌協을 스승으로 모시고 문하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구고촌은 하성귀의 처가가 있는 곳으로 작자는 현재 그 마을을 지나다가 느낌이 일어 情懷를 시문으로 읊긴 것이다. 시문에 흐르는 전반적인 情調는 슬픔이라고 할 수 있다. 기구에서부터 쓸쓸한 마을로 인하여 객의 슬픔은 한층 더하고 있는데, 인적 없는 골목에는 나무만이 드리워져 있다라고 하여 구고촌의 분위기가 어땀함을 알려주고 있다. 전구와 결구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며, 과거 선조의 모습에 비할 때 현재 자신은 초라할 뿐임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작품 또한 ‘채찍 드리우고 말 가는대로 맑은 시내 건너니, 해 질 무렵 고목에 쓸쓸한 연기 이네. 청산을 다 다녀도 사람들 보이지 않으니, 마음이 근심스러운 줄을 누가 알겠는가?’¹⁶⁾라고 하여 정조

14) 『圭南文集』 卷1, 「過任實九臯村有感」 중 첫 번째 작품.

15) 『圭南文集』 卷1, 「過任實九臯村有感」 小序, 村 我高祖妣朴氏 生長之地 而高王考伴鶴公 所嘗往來處也.

16) 『圭南文集』 卷1, 「過任實九臯村有感」 중 두 번째 작품, 垂鞭信馬度清溪 古木寒烟日

면에서 첫 번째 시문과 큰 차이를 드러내 보이고 있지는 않다.

하백원의 본관은 진주로 선조들이 여말선초에 일찍이 정계에 진출하여 河崙, 河演과 같은 인물들을 배출하는 등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러나 한동안 맥이 끊어지는 듯하였으나 17세기 초반쯤에 錦沙 河潤九가 오늘날 全南 和順郡 二西面 野沙里에 터를 잡으며, 문과에 합격하여 중앙 정계에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이후 하백원의 고조부인 하성귀를 뒤이어 증조부인 屏巖 河永淸은 文學과 行誼로 세상에 드러나는 등 名望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선조들과 대비할 때 의지를 마음대로 펼 수 없는 하백원 자신은 초라할 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선조들의 자취가 숨어있는 곳을 기행하며, 시문을 통하여 그러한 감정의 상태를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 이는 당시 향촌에 머물며 뜻을 펴지 못하던 儒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백원은 21세에 性潭 宋煥箕를 찾아가 제자의 예를 갖춘다. 하백원의 고향과 송환기가 살고 있던 곳은 그리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不遠千里하고 찾아가 제자의 예를 갖춘 것은 순전히 부친 河鎭星의 遺命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송환기는 송시열 → 權尙夏 → 韓元震 → 宋能相으로 이어진 老論의 湖論系 학맥을 이은 문인으로 알려져 있다. 즉, 당시 송시열의 가학적 학맥을 이은 송환기에게 많은 문인들이 모여들었는데, 하백원도 그 문인 중 한 사람이 되어 유학을 배웠음을 알 수 있다.¹⁷⁾ 이는 유학의 정통성을 찾아 이어가보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력은 비단 전해져오던 문헌을 통해서만 행해진 것은 아니고, 先師들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찾아 감으로서 실현하였다.

먼저 송환기를 스승으로 모시기 위하여 가던 중에 송시열의 묘소를 찾아 배알하고 지은 시문의 일부분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暮時 行盡靑山人不見 心懷悄悄有誰知.

17) 박명희, 「圭南 河百源 시에 나타난 情懷의 변모 양상」, 『韓國言語文學』 제57집, 韓國言語文學會, 2006, p.163.

(省略)

天回庚戌運	하늘이 경술의 운을 돌려
氣萃丁未歲	기가 정미년에 모이네
生出宋夫子	하늘이 우암 선생을 탄생시키니
節學幸復繼	절의와 학문 다행히 다시 이어졌네

(中略)

餘教至今在	남은 가르침 지금까지 있으니
後學爭慕仰	후학들 다투어 그리워하며 우리러보네
小子尤有甚	나 더욱 심함이 있으니
往事俾可忘	지난 일을 잊게 할 수 있을까
憶曾高王考	생각하면 일찍이 고조할아버지께서
受教蘇湖上	소호 위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네
孱孫亦賴斯	못난 자손 또한 이에 힘입어
庶不失趨向	나아갈 바를 거의 잃지 않았네
潭上從師日	물가 위에서 스승을 좇는 날
卜得華陽行	점을 쳐서 화양동을 갔었지
曉發興農洞	새벽에 흥농동을 출발하여
暮向青川程	해 질 무렵 청천길을 향하였네
寂寞鷹山下	적막한 응산 아래에서
展拜先生塋	선생의 무덤 앞에 펴고 절하였네

(省略)

大老世已遠	큰 늙은이 세상과 이미 멀어지니
末路空躑躅	끝 길에서 공연히 머뭇머뭇하네
無緣觀德容	덕스러운 모습 뵈을 길이 없으니
聊復誦遺書	애오라지 남긴 글을 다시 외우네
鑿鑿雖莫測	큰 키와 열쇠 비록 헤아릴 수는 없지만
膏馥尚可茹	은혜와 향기는 오히려 헤아릴 수 있구나
??管萬曠感	오랜 세월의 소감을 붙이노니
詞短意有餘 ¹⁸⁾	말은 짧으나 뜻은 남음이 있네

시문의 서두에 언급한 경술년은 중국 송의 朱熹가 탄생한 해(1130년)

18) 『圭南文集』 卷1, 「謁尤菴先生墓」

이고, 정미년은 송시열이 탄생한 해(1607년)로 주희의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송시열임을 은연 중에 나타내 보여주었다. 그런데, 작자가 탄생했을 때 송시열은 이미 세상을 뜬 상태였기에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遺訓은 후대인들에게 남아 있어 후학들이 존경하며 앞다투어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며, 그 중에서도 작자 자신은 더욱 더 심함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지난 일을 회고하기 시작하는데, 고조할아버지인 하성귀가 송시열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던 일부터 떠올린다. 그리고는 곧바로 자신이 송환기를 스승으로 모시던 날 송시열이 살아생전에 기거했던 곳인 華陽洞으로 갔던 일을 회상하며, 겸하여 묘소를 알현한 일을 말하였다. 이미 세상을 떠난 송시열을 ‘大老’라고 지칭하며, 더 이상 뵈지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가 하면, 남김 없이 외우고 있는 현재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고 있다.

다음 시문 또한 송시열을 회고하며 지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荊湖千石恨 형호의 많은 돌들의 한이여!
 痛哭此登臨 이곳에 올라 통곡을 하네
 江心留不轉 강의 마음 머물러 흐르지 않으니
 澗壁亦哀吟¹⁹⁾ 시내 벼랑도 또한 슬피 읊조리네

泣弓巖에서 지은 작품으로 송시열 시문의 운을 이었다라고 하지만, 마치 송시열의 입장이 되어 바위에서 슬피 우는 모습을 재현한 듯하다. 읊궁암은 華陽九曲 중 제3곡으로 孝宗이 북벌정책을 펴다가 승하하면서 그만 좌절되자 그것을 크게 슬피하여 새벽마다 한양을 향하여 활처럼 엮드려 통곡하였다는 유래를 담고 있는 곳이다. 위 시는 이러한 깊은 유래를 담고 있는 바위에서 북쪽을 향해 슬피 울었을 송시열을 회고하며, 작자 자신도 뜻을 함께 함을 간접적 내비치었다.

다음은 송준길이 세운 누각인 玉溜閣에서 지은 작품으로 선사의 흔적을

19) 『圭南文集』 卷1, 「泣弓巖謹次尤菴先生韻」

찾으려는 노력은 앞의 시문들과 일맥상통한다.

絕峽憑危閣	끊어진 골짜기에 위태로운 누각이 기대어
疎松蔭右臺	성근 소나무 누대의 오른쪽을 그늘 지웠네
前賢有遺躅	앞 현인의 남은 자취 있고
幽逕長新苔	아득한 길에 새로운 이끼 자라네
嶽色春猶雪	산 빛은 봄인데도 눈이 있고
泉聲夜轉雷	샘소리는 밤에 더욱 요란하네
清湍流憂玉	맑은 여울은 옥을 굴리 듯 흐르네
知有活源來 ²⁰⁾	펼 펼 솟는 근원이 있음을 알겠네

송준길은 李珥·金長生 등의 문인으로 한때 북벌계획에도 참여하였고, 학문적으로는 송시열과 같은 경향의 성리학자로 알려져 있다. 옥류각은 1639년에 송준길이 세운 누각으로 앞의 골짜기가 '옥같이 맑은 물이 흐른다'라고 하여 '玉溜'라고 지었다라고 한다. 하백원이 이러한 옥류각을 찾은 근본적인 이유는 유학을 익히고자 하는 학자적 자세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시문의 수련은 옥류각 주변의 승경을 그렸고, 함련을 통해서도 그러한 누각에는 아직도 현인의 발자취가 남아 있다라고 하며, 송준길의 흔적을 회고하였다. 그리고 경련에서 또 다시 누각 주변의 경치를 현상적으로 보여주려 하였고, 마지막 미련에서는 옥을 굴리듯이 흐르는 맑은 여울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근원이 있음을 알겠노라고 하며 시문을 끝맺었다. 옛 자취를 더듬어 그것을 이어가고자 하는 자세가 엿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선사들이 남긴 자취를 찾아 그들을 회고하는 시문을 살폈다. 이러한 작품들은 대체로 하백원이 수학기에 접어들어 지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학문에 입문하는 입장에서 평소 학문적으로 흠모하던 대상을 찾아 그들이 남긴 발자취를 더듬어가며 앞으로의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았을 것으

20) 『圭南文集』 卷1, 「玉溜閣謹次同春先生韻」

로 생각한다.

하백원은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유학자로서 이름을 얻으려고 한다면 經術도 밝아야 하고, 史學에도 박식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옛 일을 알지 못한다면, 또한 무식을 면하지 못한다.'²¹⁾라는 단편적인 언급에서 역사를 경술과 같은 위치에 놓고 있으며, 특히 우리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히 인식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역사 현장을 유관한 것으로 본다면, 실천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다. 그 실천적인 측면은 시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데, 시제 「松坡碑」, 「過弘慶院」, 「扶餘懷古」, 「落花巖」, 「唐碑」, 「阜蘭寺」, 「過夢賚亭不得登臨」, 「舟到冠巖巖是金將軍成雨征倭時免胄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많은 작품 수는 아니지만, 어떤 역사에 관심이 있었으며, 역사인식이 어떠했는가 등을 알게 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먼저 역사 현장에서 단순히 옛 일을 회고하는 작품을 들어본다.

古寺遺墟在	옛 절에 남은 터 있으니
殘碑秋草多	쇠잔한 비에 가을 풀만 자랐네
前塵問啼鳥	앞 세상일을 우는 새에게 묻고
落日駐征驪	해 떨어지자 가던 노새를 멈추네
野濶雲垂地	들이 넓음에 구름이 땅에 드리우고
橋危水沒沙	다리가 위태로우니 물이 모래로 빠져드네
迢迢南去路	멀리 남쪽으로 가는 길이어
今夜宿誰家 ²²⁾	오늘 밤 뉘 집에서 잘거나

弘慶院을 지나며 지은 작품이다. 홍경원은 충남 植山에 위치한 사찰로

21) 『圭南文集』 卷2, 「寄子弼瀾戊戌正月」, 蓋名爲儒者 經術不可不明 史學不可不博
…… 且以東方之人 全昧東方故事 則亦未免無識…….

22) 『圭南文集』 卷1, 「過弘慶院」

고려 현종 때에 이곳이 갈림길의 요충지인데다가 人家와 멀 뿐만 아니라 갈대숲이 들판에 가득하여 사람들이 자주 강도를 만나기에 절을 세워 '奉先弘慶寺'라 이르고, 또한 객관까지 세워 '廣緣通化院'이라 하여 지나가는 길손에게 양식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명종 때에 망이·망소이 등이 난을 일으켜 홍경원을 불태워 승려 10여 명을 죽이는 사태가 일어난다. 이로써 사찰은 터만 남게 되었는데, 위 시는 폐허로 변해버린 홍경원을 지나며 감회가 일어 지은 작품이다. 수련에서부터 벌써 '쇠잔한 비'와 '가을 풀' 등을 언급하며, 황량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두우며 미래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작자의 자세가 엿보인다.

이러한 시적 분위기는 부여를 유관하고 지은 다음의 작품들에서도 나타난다. 「暮渡錦江」이라는 작품의 소서에 의하면, '정유년에 刑獄을 다스리기 위하여 명을 받고 부여로 향하여 갔다.'²³⁾라고 한 것으로 보아 부여를 간 목적은 단순한 유람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公務를 수행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유관하며 시문도 남기는데, 「부여회고」, 「낙화암」, 「당비」, 「고란사」, 「과몽퇴정불득등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부여회고」는 모두 세 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작품을 들어본다.

百濟興亡事已灰	백제의 흥망사 이미 재로 변하니
東風招悵客停盃	동풍에 슬피 나그네 술잔 기울이네
龍爪留痕空赤血	용의 손톱은 붉은 피 흔적 남아있고
巖花無跡盡蒼苔	바위 꽃은 푸른 이끼 다 끼어 흔적조차 없구나
故國千年流水在	고국에 천 년 흐르는 물이 있는데
孤城落日早鴻哀	해 지는 외로운 성엔 이른 큰기러기 슬퍼하네
誰道馬江天設險	하늘이 백마강에 위태로움을 베풀었다고 누가 말하였나
君王曾醉自溫臺 ²⁴⁾	군왕이 일찍이 취하기를 온대로부터 하였다네

23) 『圭南文集』 卷1, 「暮渡錦江」, 丁酉 ○ 時 以按獄事 承命 作扶餘行.

24) 『圭南文集』 卷1, 「扶餘懷古」 중 첫 번째 작품.

부여는 한때 백제의 수도였던 곳이다. 한 나라의 중심지였기에 한창 번화했던 때도 있었을 것인데, 현재 그러한 번성함은 찾을 길이 없다. 작자는 이러한 내용을 작품의 처음부터 담았는데, 자신을 재로 변한 백제의 역사를 생각하는 나그네로 전이시켜 보여주었다. 함련에서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백제의 남긴 흔적을 찾아보며, 옛 일을 회고해 보고 있다. 그리고 경련에서는 나라는 비록 망했지만, 그동안 변함없이 도도히 흐르는 강을 들기도 하는데, 사람없는 성을 지키는 기러기조차 슬피한다라고 하며 쓸쓸히 사라진 백제를 기리고 있다. 이러한 황량한 분위기는 ‘온조의 천년 나라가, 반월성에 황량하여라. 변화함은 찾을 수가 없고, 쓸쓸한 절에는 종소리만 있구나.’²⁵⁾라고 읊은 두 번째 작품에서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시문을 통하여 백제의 멸망에 대한 성찰을 하는데, 그러면서 흔히 백제를 멸망시켰다고 여겨온 의자왕조차 위로의 대상이 된다고 읊으며, 심지어 의자왕을 영웅의 위치에까지 올린다.²⁶⁾ 그동안의 역사가 의자왕을 부정적으로 서술한 것과는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작자는 역사 현장을 통해 옛 일을 생각하되 단순히 문헌적 역사 기록에 의존해 자신의 소회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음 두 작품 또한 백제의 역사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앞 작품처럼 옛 일을 회고하는 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과 대비하며 보여주고 있다.

- ① 息婦無言未足哀 슬퍼할 수도 없는 말없는 궁녀들
 紅粧墮盡馬江隈 예쁘게 화장하고 백마강 기슭에 다 떨어졌네
 巖花不識佳人恨 낙화암 아름다운 사람의 한 알지 못하여
 猶自年年向水開²⁷⁾ 오히려 해마다 물을 향해 핀다네

25) 『圭南文集』 卷1, 「扶餘懷古」 중 두 번째 작품, 溫祚千年國 荒涼半月城 繁華無覓處 蕭寺有鍾聲.

26) 『圭南文集』 卷1, 「扶餘懷古」 중 세 번째 작품, 一盃上元酒 弔故義慈城 千載英雄恨 江流作怨聲.

27) 『圭南文集』 卷1, 「落花巖」

② 江上孤菴勢似懸 강 위의 외로운 암자 매달려있는 듯하니
 樑間猶記齊王年 들보에 오히려 백제왕의 연도 기록되었네
 居僧不管興亡事 절에서 사는 스님 흥망의 일을 모르는 듯
 滿地烟波相對眠²⁸⁾ 땅 가득한 풍경을 대하며 졸고 있네

①과 ② 모두 扶蘇山을 대표하는 유적지로 ①은 백제 의자왕 시절 백제가 羅唐聯合軍의 침공으로 함락되자 궁녀 3천여 명이 백마강 바위 위에서 투신하여 죽었다고 하는 유래담을 담고 있는 落花巖을 대상으로 한 시이고, ②는 여러 異說을 가지고 있는 臯蘭寺를 시제로 읊은 것이다.

①의 기·승구에서는 많은 궁녀들이 백마강에 떨어졌던 당시를 회고하며, 강에 떨어지는 처참한 신세이지만 슬퍼할 수도 없었던 궁녀들의 처지를 중점적으로 읊었다. 그러나 전·결구에서는 현재의 위치에서 낙화암을 바라보며, 과거 사람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하여 무심히도 백마강을 향해 있음을 적었다. ②의 기·승구에서는 고란사가 있는 위치와 절의 들보에 적혀져 있는 기록 연도 등 객관적인 사실을 언급하였고, 전·결구에서는 과거사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스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다음 작품은 부끄러운 과거 역사를 담은 삼전도비를 유관한 후 지은 것으로 청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볼 수도 있다.

深耻當年豎此碑 그 해에 이 비가 세워진 것 깊이 부끄러워하여
 看來憤氣欲揮椎 보고 온 분한 기운 휘둘러 치고자 하네
 如今不願工文墨 지금 글 잘한 것 원하지 않으니
 恐值金人勒石時²⁹⁾ 청나라에 항복비문을 지을까 두려워서네

이 작품이 지어진 시기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한양에 과거시험을 치

28) 『圭南文集』 卷1, 「臯蘭寺」

29) 『圭南文集』 卷1, 「松坡碑」

르러 갔다가 松坡碑를 둘러보고 읊은 것으로 생각된다. 송파비는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데, 三田渡에 세운 비라고 하여 ‘三田渡碑’라고도 하며, 청나라 太宗이 세운 비라는 의미에서 ‘淸太宗功德碑’라고도 이르기도 하는데, 구체적인 이름은 ‘大清皇帝功德碑’이다. 1636년 병자년에 청나라 태종이 조선을 형제의 나라로 생각하니 서로가 禮遇로써 대하자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한족인 명을 멸망시키고 여진족이 세운 청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한 청의 요청을 쉽게 받아들일 리 만무하였다.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조정의 신하들 또한 그동안 오랑캐로만 여겨온 여진족과 형제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치욕적인 일로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은 당연히 청나라의 요청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청 태종은 이에 격분하여 2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쳐들어왔다. 그러나 많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청을 당해낼 수는 없었기에 인조는 궁을 버리고 남한산성까지 몽진을 가게 되었고, 청군이 남한산성을 포위한 지 대략 45일 만에 항복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를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청의 강요에 못 이기어 비를 세우게 되었다.

위의 시는 이렇게 하여 세워진 삼전도비를 읊은 것으로 기·승구에서는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를 담고 있기에 분한 기운이 일어 비를 치고 싶다고 하였다. 격한 감정의 상태를 그대로 시 내용에 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결구에서는 혹시 글을 잘 짓게 된다면, 또다시 청의 비문을 지을 수도 있기에 名文家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당시 張維·李慶全·趙希逸·李景奭 등의 문장가에게 삼전도비를 짓게 하였는데, 네 사람 모두 여러 핑계를 대며 사양하였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회고한 부분이기도 하다. 즉, 문장가가 된다면 두 번 또 이러한 치욕적인 글을 지을 수도 있기에 자신은 글 잘 짓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4. 시적 전개의 志向과 의미

지금까지 하백원이 유관 후 지은 기행시의 회고적 경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회고의 대상은 선조와 선사, 그리고 역사유적지 등으로 대별할 수 있었는데, 생애사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대상들은 경계 구분이 가능하다. 가령, 선조와 선사를 회고한 시는 수학기에 주로 지어졌고, 역사유적지를 답사한 후 역사를 회고하는 작품은 학문발전기 이후부터 창작해다는 점에 서이다. 이는 수학기는 학문에 입문한 시기로 마음 자세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옛 조상이나 영향을 준 직·간접적인 스승에 대한 예를 갖출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 학문발전기부터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자유로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하백원은 회고적인 기행시를 통하여 무엇을 志向했을까? 이는 당시 사회적, 학문적, 지리적 관념 등의 여러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간단히 언급할 것은 아니다.

첫째, 선조의 회고는 자신의 '뿌리찾기'와 관련된 것으로 조선후기 門中을 중요시하고, 家門을 숭상하는 풍조와 무관치 않은 듯하다. 당시 사회는 정치적으로 당쟁이 전개되어 어느 인물과의 관련으로 인해 흥하느냐 몰하느냐의 기로에 있었다. 그러한 여건에서 이해 관계가 같은 씨족간의 유대는 물론 씨족 내에서의 결속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었다.³⁰⁾ 따라서 앞 다투어 자신의 선조를 모시는 사당이나 서원을 건립하고, 족보를 간행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하여 조상 숭배의 의지를 다하였다. 선조가 남긴 발자취를 더듬어 그 유적을 찾고, 회고하는 일 또한 마찬가지로 당시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고려 말 중국 송의 주자학이 유입된 이래 조선의 유학은 주자학이 本流의 위치를 차지하며, 면면히 흘러 여타의 학문은 용인하지 못하는 분위기

30) 이회환, 「조선말기의 旌閭와 家門 숭상의 풍조」, 『조선시대사학보』 7집, 조선시대사학회, 2001, p.158.

로까지 가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조선후기에 이르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며, 학문적 異見이 속출하였다. 당파에 따라서 각각 견해를 달리함은 물론이거니와 같은 당파 내에서도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학문적인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 대표적인 것이 人物性同異에 관한 논쟁(湖洛論爭)으로 하백원 또한 그러한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으나 湖論과 洛論 어느 쪽도 동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엽적인 문장의 의미를 번쇄하게 파고들어 서로 논쟁의 실마리를 일으키고 학과를 분열시켜 비난하기를 멈추지 않으니 근래의 호론과 낙론은 매우 한심스럽다’³¹⁾라고 하여 결국 둘 모두를 비판하기에 이른다. 학문의 본질은 왜곡한 채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논쟁만 일삼는 모습이 한심스럽게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학문적 왜곡은 마치 유학을 흐리게 하는 요소로 인정하며, 이는 유학의 본류인 주자학을 侵害하는 행위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주자학의 정통을 이은 정신적 스승인 송시열에 대항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송시열의 묘를 답사하고 지은 회고의 시문에서 ‘도는 커서 담을 수가 없는데, 못사특한 무리들이 다투어 독을 퍼우네. 더구나 다시 문과 답장 안에서, 싸움하여 욱보이는 행위를 방자히 했다네. 일월이 비록 이지러짐이 없을지라도, 세상의 도가 어찌 그리 각박한가?’³²⁾라고 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둘째, 하백원이 선고의 유적을 더듬어 가며 회고의 시문을 남긴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점차 침체되어가는 듯한 주자학을 다시 한 번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하백원이 역사 유적지를 답사한 것은 조선 국토에 대한 지리적 관념이 내재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하백원은 30대 초반에 ‘朝鮮全圖’와 8道の 지도로 구성된 9폭의 ‘동국지도’ 등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지도를 완성한 후 다음과 같이 읊기도 하였다.

31) 『圭南文集』卷2, 「與兪金化」, 區區文義之末 互起爭端 分裂門戶 詆訾不已 近日湖洛之論 實有大可寒心者矣.

32) 『圭南文集』卷1, 「謁尤菴先生墓」, 道大莫能容 群邪爭逞毒 况復門牆裏 戈戟恣侵辱 日月雖無傷 世道何蹇剝.

披圖寧歎小吾東 지도를 펴고 어찌 우리나라가 작음을 탄식하라
 千載檀箕尙有風 천년의 단군과 기자의 유풍이 오히려 남아있다네
 山連渤海關防壯 산은 발해에 이어져 관문이 웅장하고
 地擅膏腴歲穀豐³³⁾ 땅은 기름져 곡식이 풍요롭다네

우리나라가 비록 작은 땅덩어리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단군과 기자의 유풍이 그대로 남아있기에 작음을 탄식할 수만은 없다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토의 영역을 멀리 발해의 영토까지 바라보며, 비록 지도이지만 국토를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하고 있다.

지도를 제작하는 일은 당시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는데, 지도의 제작과 유통은 국토와 공간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주었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였다. 그런데다가 당시 조정은 중국과의 빈번한 교류와 새로운 문화적 기류에 호응하여 세계지도와 동아시아지도를 제작하여 유포시킴으로써 국토지리와 공간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켰다.³⁴⁾ 즉, 그동안 관념적으로만 국토를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국토를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동안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산수관도 점차 바뀌는 추세로 흘러갔다. 산수를 이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조선을 통틀어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조선후기에 이르면 이에 대한 시각의 변모를 겪는다. 즉, 산수는 더 이상 심성을 도야하는 도피처도 아니고, 거기에서 道體를 발견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백원이 역사 유적지를 답사한 것도 산수 유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긴 시문을 통해서 보자면, 어디에도 그 이전의 성리학자들이 자주 언급한 도는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유적지를 통하여 역사를 회고하며, 옛 일의 감회에 젖을 뿐인 것이다. 이에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백제의 유적지를 돌아다본 것이다. 역

33) 『圭南文集』卷1, 「東國地圖成與吳大彥拈韻共賦」

34) 진재교, 「이조후기 문예의 교섭과 공간의 재발견」, 『한문교육연구』 21,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pp.501~502 참조.

사의 흐름으로 보자면, 백제는 망한 나라이기에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백원은 백제의 유적지를 더듬으며 감회에 젖고,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보기도 한다. 이러한 유적지 기행은 그동안 잊혀졌던 국토의 공간을 실제로 돌아다보며, 그곳에서 역사를 알아보려는 노력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넷째, 역사 유적지를 되돌아보며, 반청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華夷觀과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화이관이란 중국의 천자를 정점에 두는 세계관 또는 상하관계적인 국제질서의 개념으로 주자학 계열에서는 이전의 小中華 의식에 尊明事大의식의 강화와 對淸 적대의식의 증대라는 요소가 첨가되어 화이관이 더욱 강고해졌다.³⁵⁾ 즉, 주자학계열에서는 소중화 의식 → 존명사대주의의 강화 → 대청 적대의식의 증대 등과 같이 중국을 대하는 시각이 변모해갔던 것이다. 하백원이 가지고 있는 청에 대한 반감은 이러한 학문적인 경향과 연관된 것으로 삼전도비가 세워진 송파를 답사하고 지은 시문 「松坡碑」를 통하여 간단하나마 그러한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하백원 대에 오면, 北伐은 이제 공허한 메아리일 뿐 실현 가능성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청에 대한 반감은 많은 이들이 가진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청에 대한 반감은 결국 그동안 소중화로만 여겨왔던 조선을 중화로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는데, 하백원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저 황통이 멸함을 고한 이후부터 나라 안은 비린내로 가득 차게 되었고, 중화의 옛 땅은 변하여 오랑캐의 땅으로 되었다. 오직 이 동방의 한 구역만이 예의로써 천하의 소리를 들어 위로 공경대부로부터 아래로 여항의 부녀자와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尊攘이 대의가 됨을 알지 아니함이 없었다. 비유컨대, 길고 긴 겨울밤에 비바람 몰아쳐 어두컴컴한데, 반짝반짝 빛나는 외로운 등불만이 홀로 방 안을 비추는 것과 같다. 이러하니 선비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또한 다행이 아닌가?³⁶⁾

35) 趙誠乙, 『朝鮮後期 史學史研究』, 한울 아카데미, 2004, p.311 참조.

36) 『圭南文集』 卷2, 「上李尙書義甲○庚辰」, 自夫皇統告絶 海內腥羶 中華舊壤化爲氈裘

명이 멸한 이후 청이 들어서면서 중국은 오랑캐의 땅으로 변모되었는데, 오직 우리나라만이 옛 중화의 맥을 이었다라고 한다. 그리고 비유하기를 우리나라가 중화의 정통을 이은 것은 마치 등불이 어두운 방 안을 환히 비추는 것과 같다고 하며, 이러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곧, 朝鮮中華主義의 싹이 트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즉, 하백원의 중국관은 반청과 조선중화주의가 서로 교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 생성된 조선중화주의는 결국 자주의식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인데, 앞의 셋째에서 보았던 조선 국토에 대한 재인식도 결국 자주의식과 무관치 않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상 하백원이 회고적 기행시를 통하여 지향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정리하였다. 하백원은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먼 시골의 한 韋帶와 布衣를 입은 사람’³⁷⁾라고 하거나 ‘바로 산야간의 바보 인물’³⁸⁾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극히 겸손을 드러낸 언급임을 알 수 있다. 궁벽진 향촌에 머물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時流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그러한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했기 때문이다. 단지, 자신이 중앙인이 아니요, ‘土’의식을 지닌 지방인에 불과했기에 급격히 변모해가는 상황에서 현재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상황은 옛 것의 향수에 빠져보는 일이었다. 여기에는 실제로 신고나 선사들이 남긴 자취와 역사적인 현장을 통하여 옛날에 화려했던 추억을 생각함으로써 다시 한 번의 光榮이 되돌아오기를 고대하는 심리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향촌 사대부가 지닌 의식의 한 단면까지 엿볼 수 있었다는 점을 의의로 손꼽을 수 있겠다.

5. 맺음말

之場 惟茲東方一域 以禮義 聞天下 上自公卿大夫 下至閭巷婦孺 無不知尊攘之爲大義 譬如長夜漫漫風雨晦冥 而煌煌一炬獨照一室之中 是則士之居是邦也 不亦幸乎.

37) 『圭南文集』卷2, 「上李尙書義甲○庚辰」, 百源 遐邇一韋布耳.

38) 『圭南文集』卷3, 「答徐監司有渠○甲午五月」, 百源 直山野間癡獸人物耳.

본 논고는 하백원 기행시의 회고적 경향에 대하여 주로 연구하였다. 하백원은 유관한 후 기행시를 남겼는데, 단순한 서정적 감정에 그치지 않고 지난 과거를 회고하며, 향촌 사대부의 모습을 담고 있어서 주목을 하게 되었다. 하백원의 생애는 수학기, 학문발전기, 출사기, 그리고 유배기 등과 같이 4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하백원은 이러한 생애동안 끊임없는 유관을 거듭하며, 거기에서 느낀 감회를 시문으로 읊기는가 하면 때로는 의식까지 드러내기도 하였다. 유관한 곳으로는 수학기의 송광사, 적상산성, 우암선생묘, 읍궁암, 형강, 옥류각 등을 들 수 있고, 학문발전기의 광진, 송파, 용인, 갈원, 홍경원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또한 출사기에는 모로원, 부여, 낙화암, 당비, 고란사, 몽퇴정, 광창, 진관사 등을 다녀갔고, 유배기에는 보령 주변의 산천을 유람하며 느낀 감회를 시로 읊어냈다.

하백원의 기행시에 나타난 회고의 대상은 첫째 선조, 둘째 선사, 그리고 셋째 역사 현장을 통한 역사적 사실 등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하백원은 선조들의 자취가 숨어있는 곳을 기행하며, 시문을 통하여 그러한 감정의 상태를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데, 이는 당시 향촌에 머물며 뜻을 펴지 못하던 유자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한 선사들이 남긴 자취를 찾아 그들을 회고하는 시문을 남겼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대체로 수학기에 접어들어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문에 입문하는 입장에서 평소 학문적으로 흠모하던 대상을 찾아 그들이 남긴 발자취를 더듬어가며 앞으로의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았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백원은 우리 역사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역사에 대한 관심은 역사적 유적지를 답사한 것과 무관치 않으며, 옛 역사를 회고하며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면 하백원은 이러한 회고적 기행시를 통하여 무엇을 지향한 것인가? 첫째, 선조를 회고함으로써 자신 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함이고, 둘째 선사의 유적을 더듬어가며 점차 침체되어가는 듯한 주자학을 다시 한 번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았다고 보았다. 또한 역사적 유적의 기

행을 통하여 그동안 잊혀졌던 국토의 공간을 실제로 돌아다보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역사를 회고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의식까지 담았다는 점을 의의로 들었다.

■ 참고문헌

『圭南文集』

김석희, 「조선후기 향촌사대부 시가와 취향의 문제」, 『조선후기 시가 연구』, 월인, 2003.

박명희, 「圭南 河百源 시에 나타난 情懷의 변모 양상」, 『韓國言語文學』 제57집, 韓國言語文學會, 2006.

이희환, 「조선말기의 旌閭와 家門 숭상의 풍조」, 『조선시대사학보』7집, 조선시대사학회, 2001.

趙誠乙, 『朝鮮後期 史學史研究』, 한울 아카데미, 2004.

진재교, 「이조후기 문예의 교섭과 공간의 재발견」, 『한문교육연구』21,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Abstract>

A Study on the Retrospective Tendency of Gyunam Ha Baek-won's Travel Poetry

Park, Myeong-hui

This study speculated the retrospective tendency of Ha Baek-won's travel poetry. Mr. Ha wrote travel poetry after he traveled. It focused on his writing as he described the local nobles carefully, reflecting the past instead of describing simple lyric feeling.

The subjects of reflection in his travel poetry were categorized as follows: ancestors, teachers and historical facts at historic sites. Mr. Ha travelled the places where he could understand ancestors' tracks and tried to deliver his understanding through his poetry. It indicates that it was an aspect of a local Confucian scholar who did not achieve his ideals. And he wrote poetry which reflected ancestors' tracks, which were written in his academic period. Ha Baek-won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our history. He travelled historic sites because he was interested in history and reflected history to show an aspect of his recognition.

So, what did he seek for through reflective travel poetry? First, he sought for his root by reflecting ancestors; Second, he desired to recover Confucianism that was gradually declining through visiting historic sites. And this study concluded that he intended to earnestly look at national territory that had been forgotten through travelling

of historic relics.

Key words : Gyunam Ha Baek-won, travel poetry, ancestors, teachers, historical facts at historic sites.